

12/6(화) 시편(4 권) 묵상 9

시편 97:1-12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7편은 하나님께서 의와 공평으로 통치하신다는 말씀을 중심으로 의인들이 더욱 성도답게 살아가기를 교훈하고 있는 시입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는 선언으로 통치에 관한 시편 97편의 말씀을 시작합니다(1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완전하고 탁월하신지 이생물인 땅과 섬들조차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의와 공평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2절,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러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그의 보좌'는 '하나님의 왕권'을 뜻하고 거기에 '의와 공평'은 참된 왕권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즉, 이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3-7절은 하나님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주님의 신현은 '불'로서 묘사되고 의로운 통치는 '사면의 대적을 불사르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3절,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두렵고 떨게 하면서 찾아오시는 이유는 '이 세상의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함'입니다(6절,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의 말씀과도 일치되는 말씀입니다(마 6:10,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이같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이 세상은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 올바른 세상이 되고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편 주님의 통치는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초월하십니다. 옴의 고난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두려움에 빠지고 때론 당황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는 '의와 공평'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비록 그가 매일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을 때 그 일로 인하여 잘 되기 보다는 도리어 고발 당하고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사자굴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 때 다니엘은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단 3:16-17,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시편 97편의 시인은 10절부터 주님의 백성들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주님의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10절,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들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여기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는 '믿음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선과 의를 구현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성도들의 영혼을 보전하시고 믿음의 성장과 복음의 전파로 악한 영의 영향력을

무력화 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11-12절,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11-12절은 ‘의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또 11절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시고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의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빛을 거두게 하시고 또 기쁨을 거두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마치 땅 속에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듯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인해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완전하신 통치로 역사 속에서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한대로 하나님은 의와 공평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의인으로 삼으셔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에도 보면 이것은 모든 것이 우리의 깨달음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주셨고 나누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결과입니다(롬 1:1,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러한 사실은 이제 우리에게 신분에 걸맞는 책임도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임은 개인적인 책임도 있지만 동시에 공동체적인 책임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그에 걸맞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3장에 보면 주님은 공동체로서 우리의 믿음과 행함을 평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에 주신 사명과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을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고전 4:1-2,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개인과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개인과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2. 미국을 위한 기도:** 미국의 위정자들과 정치, 경제, 외교,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도 중보합니다. 미국의 교회들과 신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 3. 교회를 위한 기도:** 오늘은 햄튼 1 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 4. 선교지를 위한 기도:** 인도네시아 이기쁨 선교사님을 위해서 중보합니다.